

화살머리 고지에서 만난 영웅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포탄이 멈추고 밤의 적막이 찾아오면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사투치게 그리웠습니다.” 서글픈 무명용사들의 끝내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읽노라면 오랜 세월의 무게에도 여전히 눈물이 난다. 그들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다. 6월 호국(護國) 보훈(報勳)의 달에, 말없이 스러져간 이름 없는 영웅들을 생각한다.

최근 관훈클럽 답사단의 일원으로, 70년 가까이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디엠지(DMZ:비무장지대)를 다녀왔다. 하지만 이제 민간인들도 인터넷 두루누리(durunubi.kr)에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방문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먼 옛날 공룡이 도읍으로 정했던 한반도의 배꼽 철원은 생각보다 멀었다. 서울

에서 버스로 두 시간 넘게 달려 읍내에 들어선다. “대민 지원 장병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땀방울로 무사히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길거리에 여기저기 내걸린 플래카드를 보며 군부대가 가까워졌음을 느낀다. 두루미평화마을에 내려 짐을 해체한다.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에 위치한,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마을이다. 마을 이름에서 이미 짐작했지만, 모내기를 마친 들녘에 노니는 두루미 몇 마리의 모습이 평화롭다.

비무장지대의 녹슨 철보

타고 온 버스를 이곳에 두고 국방부에서 제공한 소형 방탄 차량으로 갈아탄다. 이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다시 얼마쯤 달리니 검문소가 나온다. 아라비아숫자 ‘5’를 옆쇠 모양으로 형상화한 5사단 ‘열쇠 부대’ 마크가 눈에 들어온다. 열쇠부대! 통일의 문을 여는 ‘평화의 열쇠’인가? 제멋대로 부대 이름을 해석해 보는데, 또 한층에 걸린 살방한 경고 문구가 으스스하다. ‘검문 불응 시 발포’. 비로소 접경지역에 들어섰음을 실감한다.

이윽고 방탄 차량이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철조망 앞에 멈춰 선다. 차에서 내려 통문(通門) 철자를 밟는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나니 사진 찍기는 아예 금했다. 디엠지의 비경을 고스란히 담아가리란 부른 꿈도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20kg이나 되는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방탄 철보를 머리에 이고 나니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남방한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로 들어선다.

남방한계선은 군사분계선(휴전선)에서 남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동서로 155마일에 걸쳐 그어진 선(線)이다.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그어진 선은 북방한계선이다. 이 두 선 사이의 4km가 바로 남북 사이의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다. 흔히 휴전선 하면 철조망을 떠올리지만 사실 휴전선 자체는 철책이 아닌 팻말로만 표시돼 있다. 텔레비전에 가끔 비치는 전방(前方)의 철책은 남방한계선이다.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는 지피(GP: Guard Post)가 있다. ‘전초(前哨)라 부르는 감시초소다. 우리 일행이 들른 곳은 화살머리 고지 지피였다. 초소에 올라 보니 동쪽으로 공작새 능선, 그 뒤로 백마고지가 보인다. 백마고지라는 이름은 포적으로 수목이 다 쓰러지고 험

뻗은 산의 형상이 마치 누운 백마처럼 보였기 때문에 붙었다 한다.

화살머리 고지는 능선이 화살 머리를 닮아 6:25 때 미군이 불인 이름이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서로 점령지를 넓히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백마고지는 주변에 철원 평야가 있는 요충지여서 수십 번 뺏고 빼앗겼다.

백마고지 탈환이 어렵게 되자 중공군은 서쪽으로 3km쯤 떨어진 화살머리 고지를 우회 공략했다. 이 바람에 51년 11월 국군 9사단, 52년 6월 미군 2사단, 52년 10월 프랑스 대대, 53년 6월 국군 2사단이 중공군을 맞아 싸웠다.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나무는 커녕 들풀마저 자취를 감추고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한다. 이때 국군 200여 명, 미군-프랑스군 300여 명, 중공군 3000여 명이 숨졌다. 이곳을 공동 유해 발굴 시범 지역으로 정한 것은 그때 문이다.

프랑스군 추모비를 둘러보고 지피에서 내려와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 유해 발굴 현장이 나온다. 지뢰 제거를 마친 곳은 노란 줄, 유해 발굴 작업장은 빨간 줄을 쳐 놨다. 능선 위를 오르니 막 발굴을 마친 한 평 남짓한 구덩이에 사람의 모습

이 뚜렷한 유해가 드러나 있다. 한쪽에 놓인 녹슨 M1 소총은 총알이 장전된 채로 쇠 부분만 보인다. 두개골을 감싼 철모는 총알이 관통했다. 유해 좌우에서는 수류탄 안전고리와 안전핀이 나왔다. 이로써 어떤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름 모를 이 병사는 잠시 소총을 내려놓고, 언덕 아래 물려오는 적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직후, 적의 총탄 세례를 받아 숨진 것이다.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니 군사분계선을 향해 도로가 뚫려 있다. 판문점과 고성에 이어 남북을 잇는 세 번째 길이다.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여기까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다만 한반도의 정중앙이라 해서 한반도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북도로 개설 기념비’를 뒤로 하고 하릴 없이 돌아설 수밖에.

작년만 해도 지뢰 제거 작업을 같이 했던 남과 북은, 지난 2월까지 남북 공동유해발굴단 명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울 들어 몇 번의 전통문을 보냈어도 북쪽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모든 게 중단된 것이다. 백

마고지 동쪽에 있는 공예성터도 공동 복원하기로 했지만,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시 통문으로 돌아와 방탄조끼를 벗는데,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등의 플래카드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보니 아주 오래 전 하와이에서 받았던 감동이 되살아난다. 8년 전쯤이었던지. 미 국방부 소속 ‘진정포로 및 실종자 확인서령부’(JAPAC:제이팩)를 방문한 적이 있다. 제이팩에는 실종 병사를 찾기 위한 최정예 군인 및 민간 연구자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군 실종자가 발생한 지역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간다. ‘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Until they are home)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다.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해 가족들의 품에 돌려주는 일은 전쟁터에서 해진 젊은이에게 국가가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일이다. 제이팩 건물 여단가에 이런 구호가 걸려 있었음을 아직도 또렷히 기억한다. “조국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는다.”(You are not forgotten)

송중기·송혜교 ‘태양의 후회’

이혼조정신청 “원만한 마무리 희망”... 결혼 1년8개월만

‘태양의 후회’가 ‘태양의 후회’로... 지난 2017년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톱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가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전남 법륜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27일 소속사 블루션 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송중기는 소송사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이보다 30분 이상 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는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라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회’에서 주인공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던 이들은 현실에서도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가 됐다.

파경 소식 이후 SNS를 통해 이혼의 원인과 귀책 사유를 묻는 지라시가 양산됐다. 파경의 원인에 대한 소문부터 합의 없이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는 설까지 루머가 확산됐다. 송중기와 박보검의 소송사인 블루션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송혜교 측 역시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며 공동 대응 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파경 소식에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매체들까지 실시간 튜닝으로 전달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연합뉴스



송혜교·송중기 부부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륜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 위는 2019년 4월과 2018년 12월 대의 행사에 각각 참석한 송혜교·송중기 모습. /연합뉴스



전남도,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추진 협약

전남도가 해양수산부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으로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7개 부처, 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완도군,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기상청과 함께 협약을 통해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 국고 지원과 지방비 확보를 약속하게 된다.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해양수산부로부터 91억원, 전남도에서 27억 원을 지원하고, 완도군이 64억원을 부담, 총사업비 18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완도지역 해양자원을 국내 최초로 해양

치유에 활용하기 위해 건강 자원화해 그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지역 특화 전략사업이다. 일차리와 소득 창출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 지역 주도의 자립 성장 기반을 마련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호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정부와 협약을 통해 예산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연말에 있을 2020년 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많은 지역특화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h2 style="margin: 0;">입 야</h2> <p style="margin: 0;">바로 삽니다</p> <p style="margin: 0;">지분물건환영.010-6834-7400</p>	<h2 style="margin: 0;">교 환 전문</h2> <p style="margin: 0;">빌딩/토지/입야등 모든 부동산</p> <p style="margin: 0;">정확/신속처리.010-3605-5000</p>
---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뱉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청 및 비보
- 사업(경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청(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산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청정비닷가 집 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 화순 남면 유미리 유미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절산비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원동 등적합 부지 남구 서동 342㎡ 위치좋은 4억5천
- 서구 화정동 대주아파트 145㎡ 정남향 전망좋은 15층 2억5천
- 함평 손보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완도군 완도를 망서리 도로접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천
- 광산구 쌍암동 대흥빌딩 중의 2층 25㎡ 과외집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신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순천시 낙안면소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기계는 공실 17억
- 총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원 1000.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장흥군 장동면 우사 허기지 땅 75368㎡ 우사는 4천여평 허가상담바람
- 강진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근거리 소형아파트 적합 19억
- 영광 영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드들강 모델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정안벽 팬션좋은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덕남동, 입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